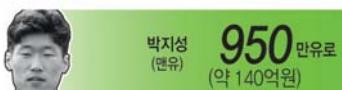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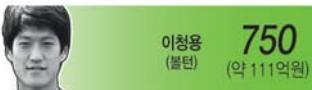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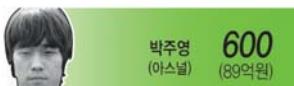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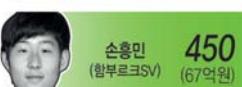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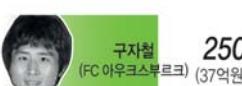


유럽 축구무대 한국 선수 시장가치
2011~2012시즌 유럽축구 거래 이적시장 가치박지성
(맨유) 950
만유로
(약 140억원)이청용
(불번) 750
만유로
(약 111억원)박주영
(아스널) 600
만유로
(89억원)손흥민
(체포르크) 450
만유로
(67억원)구자철
(FC 아우크스부르크) 250
만유로
(37억원)지동원
(선덜랜드) 150
만유로
(22억원)정조국
(AS 낭시) 100
만유로
(15억원)

박지성 시장가치 140억

유럽파중 1위…2년동안 40억원 하락

2위 이청용, 3위 박주영, 4위 손흥민

유럽 축구 무대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 박지성(31·맨유)의 시장가치가 140억 원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축구 이적시장 이슈를 다루는 독일 매체 트란스파마르クト가 2011~2012시즌 유럽축구 거울을 이적시장을 접두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박지성의 시장가치는 950만 유로(약 140억원)로 평가돼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둔 재작년 6월에 1천150만 유로(당시 환율기준 180억 원)의 가치로 산정된 바 있어 2년 남짓한 사이 몸값이 다소 하락한 셈이 됐다.

2위에는 750만 유로(111억원)로 평가된 이청용(23·불번), 3위에는 600만 유로(89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박주영(27·아스널)이 자리했다.

'막내' 지동원(21·선덜랜드)은 150만 유로(22억원)로 임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한국 선수 중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낮았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 할부르크SV의 손흥민(20)은 450만 유로(67억원), 불프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된 구자철(23)은 250만 유로(37억원), 프랑스 리그의 정조국(28·AS 낭시)은 100만 유로(15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메시 233골…바르셀로나 팀 최다골 기록

그라나다전 3골 폭발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축구천재 리오넬 메시가 신들린 득점력을 선보이며 또다시 신기록을 쓸어냈다.

메시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파 누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29라운드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후 233번째 골을 터뜨려 팀의 5-2 승리를 일궜다.

이로써 메시는 1940~1950년대 바르셀로나를 이끈 세자르 로드리게스가 세운 구단 내 개인 통산 최다 골 기록(232골)을 깨고 새 역사를 썼다. 애초 로드리게스가 세운 팀내 개인 득점은 총 235골로 알려졌지만 공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3골이 제외돼 232골로 수정됐다.

메시는 전반 4분 사비의 골을 어시스터해준 데 이어 전반 16분 이사 쿠엔카의 크로스를 받아 원발 빌리슛으로 그라나다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라나다의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하던 메시는 양팀이 2-2로 맞선 후반 22분 당시 알베스가 골문 앞으로 길게 빼준 공을 오프사이드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원발로 살짝 퍼팅 힘의 역전 골을 만들어냈다.

메시는 후반 종료 직전 앤드레스 이나

에스타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렸지만

그라나다의 골키퍼 손에 맞는 바람에 골

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뛰어나온 공이 바르셀로나의

신예 크리스티안 테오의 발에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의 네 번째 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셈이 됐다.

후반 39분 메시는 다시 한번 알베스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치고 자신의 시

즌 8번째 해트트릭을 완성함과 동시에 바

르셀로나의 새 기록을 세웠다.

이날 경기에서 정규리그 34회 골을 뽑아낸 메시는 프리미어리가 득점 1위 자리

도 차지했다.

/연합뉴스



심판 살려!

지난 2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뉴욕 아이슬랜더스 대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경기. 뉴욕의 포워드 씨치카스가 토론토의 포워드 맥아서를 보디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동원 4경기만에 후반 교체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지동원(21)이 네 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동원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블랙번의 이우드파크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블랙번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7분 교체투입됐다. 선덜랜드는 니콜라스 벤트너와 프레이저 캠벨을 주전 공격수로 경기에 내세웠다.

데이비 호일리에게 선취골을 허용해 1-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캠벨과 교체된 지동원은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페널티 밸스 안에서 제임스 맥클리니의 센터링을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 위를 넘겨 아깝게 동점 기회를 놓쳤다. 지동원이 제대로 활약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

후반 41분 아예그네니 아쿠부에게 헤딩볼을 염아맞은 선덜랜드는 2-0으로 패해 승점을 챙기지 못하고 10승7무12패, 승점 37로 리그 9위 자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남구민 건강 지킴이 역할

김시권 남구 생활체육회장 취임

김시권 부동의식산업대표가 광주 남구 생활체육회 회장에 취임했다.

남구 생활체육회는 최근 정기대의 원총회를 열고 제 5대 회장으로 김시권 대표를 선출했다. 또 박영만 광주 동차공업 대표를 상임부회장으로 20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김 회장은 "남구생활체육회 회원 책자 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구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남구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010-3608-4267, 010-3642-2849

▲남도산신협 남양주 운길산·예봉산 3월24일(토)

5시30분 롯데마트월드컵경기장 5시45분 시청주차장

건너편 6시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

시티P.010-4741-4433

▲광주철도안전위한 완도블루나파호로 떠나는 제주도

도 블레기 및 한진汽船(28일)※다음카페: 남도산

전통 브라운관 7시, 롯데마트화장품 24일(토)

영주체육관 7시, 롯데마트화장품 24일(토)